

[국제리뷰 06-1] 제50차 여성지위위원회: 회기 진행 방식 개선 등 성과 이뤄

한국여성개발원 정혜선 연구원

제50차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여성을 주제로 하는 유엔 회의 중 가장 큰 회의인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회원국 각국과 전 세계 NGO 대표단이 함께 하는 회의로서 올해로 60주년을 맞기도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발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하여 안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한다. 특히 올해에는 의사결정과정과 개발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베이징 행동강령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동 회의의 회기 방식을 개선하는 결정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주요 의제: 의사결정과정과 개발 부문에 여성의 참여 확대

이번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개발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라는 두 주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회원국들은 베이징 행동강령을 재확인하고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동등한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양성평등과 개발, 평화 및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기제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빈곤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불평등한 법제도 등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적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유엔의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낮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특히 동 위원회에 참가한 NGO들은 유엔의 고위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을 늘릴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요구되었으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유엔 내에는 전혀 이 같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기 진행 방식 개선: 정책개발 회기와 이행평가 회기로 나뉘

여성지위위원회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의 성과를 이행하는 주요 의제 두개에 대한 전문가 패널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대한 고위급 패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NGO들은 행동강령의 12개 주요 의제 중 매년 두개의 주제를 다루어오던 지금까지의 회의 방식은 의견을 교환하거나 최근 부상하는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해왔다. 회의 결과로 채택되는 결정문 또한 회원국 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베이징 행동강령보다 후퇴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어렵게 얻어낸 결정문이 실제 회원국에 의해 이행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향후 회기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강화하는 취지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문에 따라, 내년 제51차 위원회부터는 전문가 패널이 한 가지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고위급 패널은 이전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 토의 주제는 정책개발과 이행평가라는 2번의 회기에 나누어 논의되는데,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행평가 회기는 정책개발 회기로부터 2년 후에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논의가 끝나기까지는 3년이 걸리는 셈이며, 새로운 회기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3년의 주기를 처음으로 완성하는 2009년 제53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정책개발 회기에서는 회원국의 경험과 제도 개발 등 모범사례에 대해 토의하며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위한 제언을 모색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되는 결정사항과 권고문은 각 회원국이 국내에서 발표하고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향후 3개년 간의 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여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 철폐 (2007년),” “양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재정 확보 (2008년),” “HIV/AIDS 등에 대한 돌봄 노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 (2009년).” 이행평가 회기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3년간 다뤄질 주제는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남성과 남아의 역할 (2007년),” “분쟁방지, 분쟁처리 및 해결, 분쟁 후 평화 구축에 있어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2008년),” “의사결정과정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 (2009년).”

마지막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서 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과 같이 ECOSOC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승인을 받은 NGO에 한하여 참여를 제한

하고 위원회 내에서의 참여 구조도 개선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여성지위위원회는 ECOSOC 산하 9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위원회의 결정문은 ECOSOC의 공식문서로 채택된다. 유엔 회원국 각국과 전세계 유수의 NGO가 참가하는 동 회의의 의결권은 ECOSOC에서 선출된 45개 회원국에게 주어진다. 의장단은 2년, 회원국은 4년의 임기로 활동하며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11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9개국, 서유럽 및 기타 8개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장이 제46-47차 위원회 부의장과 제48-49차 의장직을 역임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4년 회원 임기는 올해로 끝났다.

매년 3월 초마다 2주간의 회기로 열리는 동 회의에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반으로 하여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 국회대표단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새롭게 적용된 할당제로 인해 국회 내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도약적으로 증가한 것과 같은 우리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이 논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참여는 아직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여성지위위원회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국제회의에서건 자주 지적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성 관련 국제 담론의 발전에 발맞추어 성공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개발 경험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개선된 회기 진행 방식 하에서는 우리 정부대표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국제 여성 담론을 선두에서 이끌고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우리의 선례가 벤치마킹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